

1784년 경주 용산서원의 崔震立 實紀 간행과정과 간행비용 분석*

A Study on the Process and Expenditure of Choi jinlib's Biography
Publishing in Yongsan-seowon, Gyeongju in 1784

손 계 영 (Son, Ke-you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맺음말 |
| 2. 실기의 이본 및 간행 관련 고문서 | <참고문헌> |
| 3. 간행과정과 간행비용 | |

<초 록>

이 논문은 조선시대 목판본 간행과정을 알 수 있는 『刊役日記』, 『刊役所用下記』 등의 자료에 주목하여 간행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1784년 경주 용산서원에서의 崔震立(1568~1636) 실기 중간본 간행시 작성된 간행비 지출장부인 『刊役所用下記』를 대상으로 하였다. 『간역소용하기』를 분석하여 목판본 간행이 있었던 실제 장소와 공간, 간행단계와 과정, 간행비용 등에 대해 다루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행장소는 용산서원과 멀지 않은 천룡사 서암에서 진행되었다. 간행과정은 원고 필사와 수정이 있었던 서사 단계, 실제 판각이 이루어진 판각 단계, 책판을 인출하는 단계로 구분되었다. 간행비의 대부분은 문중계와 용산서원 소유의 토지를 방매하여 마련하였고, 지출된 비용의 80%는 참여인력의 인건비, 쌀과 식재료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要語: 목판본간행, 刊役所用下記, 崔震立, 龍山書院, 天龍寺 西菴

<ABSTRACT>

The typical cases of old historical manuscripts showing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wood block printing are *Gan · yeok · yil · gi* (刊役日記) and *Gan · yeok · so · yong · ha · gi* (刊役所用下記). This study focused on *Gan · yeok · so · yong · ha · gi*, which recorded expenditures spent on the publishing of wood printing blocks.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and expenditure of biography publishing by analyzing *Gan · yeok · so · yong · ha · gi*, which was written when Choi jinlib's (崔震立, 1568~1636) biography was published in Yongsan-seowon (龍山書院), Gyeongju (慶州) in 1784.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Gan · yeok · so · yong · ha · gi*, which was the account book kept on the process of publishing the wood block printing biography, the amount of money spent on biography publishing, the situation conjectured from the details of the expenditure, goods and materials required in the publishing work, incomes and expenses related to the publishing, etc.

Key words: Wood block printing, *Gan · yeok · so · yong · ha · gi* (刊役所用下記),
Choi jinlib(崔震立), Yongsan-seowon(龍山書院),
Temple cheon-yongsa seoam(天龍寺 西菴)

* 이 결과물은 2017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부교수(sonkey@cu.ac.kr)

투고일: 2019년 11월 17일 최초심사일: 2019년 12월 15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27일
서지학연구, 제80집, 141-168,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80.141>

1. 머리말

조선시대 문집의 목판본은 16세기부터 18세기 초반 감사와 수령의 주도에 의해 州府郡縣의 지방관아에서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 그러나 17세기를 거쳐 18세기 초중반에는 부세제도의 변화로 지방관아 재정이 제한되어 지방관아의 목판본 간행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한편 숙종대에는 서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8·19세기에는 서원 중심으로 목판본 간행이 전개되었고, 19세기 말부터는 서원의 제도권에 속하지 못하거나 서원의 지지를 얻지 못한 사족들의 문집 간행이 폭발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¹⁾

조선시대 목판본 간행은 지방관아, 서원, 서당, 사가 등의 주체로 이루어졌으나, 목판본 간행의 실제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간행의 실제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는 ‘刊役日記’와 ‘刊役所用下記’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자료가 남아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1784년 경주 용산서원의 崔震立 실기 간행에 대한 ‘刊役所用下記’, 1815년 대구 경주최씨 문중의 崔興遠 문집 간행에 대한 ‘文集刊役記事’, 1889~1891년 단성 성산김씨 문중의 許傳 문집에 대한 ‘性齋先生文集刊所用下記’ 등이 있다. 허전 문집인 『성재집』에 대해서는 간행 당시 작성되었던 ‘성재선생 문집간소용하기’를 분석하여 간행과정과 비용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²⁾ 이 논문은 앞선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18세기 후반 경주 용산서원에서 작성된 최진립 실기 간행비 지출장부인 ‘간역소용하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경주의 용산서원은 경주최씨 동쪽 부락 마을인 내남면 이조마을 뒤편에 위치하며, 천룡산 자락인 고위산 아래에 자리잡고 있다. 용산서원은 경주최씨 이조마을의 파조인 임진왜란 공신 潛窩 崔震立(1568~1636)을 향사한 곳이다. 최진립의 가문은 경주의 토성이자 무반가였으며, 지역 인근의 토성과 혼인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의 재지 기반을 구축하였다. 경주최씨 가문은 최진립 형제들이 임진왜란 당시 경주전투에서 공을 세우며 가문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최진립 이전까지는 武科와 軍職을 세습하는 정도였다. 이후 최진립은 정유재란에서 공을 세우고, 삼도수군통제사, 전라수사 등을 지냈으며,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전투 중에 전사하였다. 용산서원은 관찰사의 장계로 사액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고, 1711년 도내 유생들의 상소로 인해 ‘崇烈祠宇’로 사액받았다. 당시 祠宇나 祠보다는 書院의 명칭을 더 명예롭게 여기고, 서원으로 부르는 풍조가 향촌사회에 만연하였다. 용산서원도 승렬사라는 사액명이 있었으나 용산서원으로 私稱하였고, 용산서원 현판을 걸어 서원으로 불리었다. 최진립의 후손들은 문반사족 중심의 지역사회에서 顯祖 최진립이 무반 출신이라는 점을 일신하기 위해 최진립의 초대형 신도비 건립, 최진립의 道號를 潛窩로 개정, 祠宇의 명칭을 용산서원

1) 손계영, “조선 후기 영남 문집 목판본 간행의 확산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3호(2013), 447-470. 참조.

2) 손계영, “『성재선생문집간소용하기』를 통해 본 19세기 후반 문집 간행과정과 간행비용 분석,” 『고문서연구』 46(2015), 177-204.

으로 변경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³⁾ 1784년 최진립 실기 중간본 간행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나온 중요 사업 중 하나였다.

이 논문에서는 최진립 실기의 이본을 살펴보고, 최진립 실기와 관련하여 용산서원에서 생산·접수되었던 고문서 6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의 가장 핵심자료인 「간역소용하기」의 형태와 구성을 다루고, 「간역소용하기」를 분석하여 목판본 간행이 있었던 실질적 장소와 공간, 간행단계와 과정, 간행비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실기의 이본 및 간행 관련 고문서

2.1 최진립 실기의 異本

<표 1> 최진립 실기의 異本과 刊行·補刻 과정

	시기	구분	서명	권책수	刊記	서문	발문
1	1739년	初刊本	貞武公崔先生實記	5권2책	明川府開刊 龍山書院藏	權相一	李德標
2	1751년	(添入補刻)	貞武公崔先生實記	5권2책	明川府開刊 龍山書院藏	權相一	①李德標 ②鄭重器
3	1784년	重刊本	貞武公崔先生實記	4권2책	(간기 없음)	①權相一 ②丁範祖	①李德標 ②鄭重器 ③李鎮宅
4	1800년 이후	(添入補刻)	貞武公崔先生實記	4권2책	龍山書院重刊	①權相一 ②丁範祖	①李德標 ②鄭重器 ③李鎮宅
5	1875년	(添入補刻)	潛窩先生實記	4권2책	龍山書院重刊	①權相一 ②丁範祖	①李象靖 ②李敦禹 ③崔世鶴
6	1904년	(添入補刻)	潛窩先生實記	4권2책	龍山書院重刊	①權相一 ②丁範祖	①李象靖 ②李敦禹 ③崔世鶴

최진립 실기의 간행 내역과 이본에 대해서는 박장승의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바 있다.⁴⁾ 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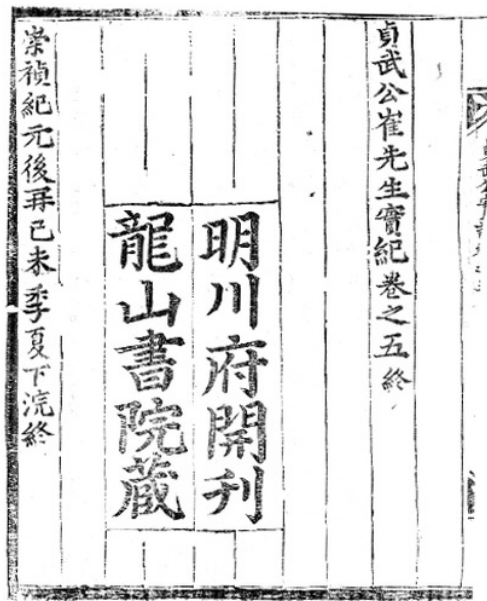
3) 이수환, “경주 용산서원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용산서원』 (과주: 집문당, 2005), 13-56.; 안승준, “경주최씨가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용산서원의 운영,” 『용산서원』 (과주: 집문당, 2005), 57-90.; 정만조, “조선후기 서원의 재정 운영 문제에 관한 일시론,” 『용산서원』 (과주: 집문당, 2005), 121-170. 참조.

4) 박장승, “정무공최선생실기 간행에 대하여,” 『경주문화』 11(2005), 207-222. 박장승의 연구에서는 1739년본을 初刊本으로 하여 1751년 첨입보각본을 重刊本, 1784년본을 三刊本, 1800년 이후 보각본을 四刊本, 1875년 보각본을 五刊本, 1904년 보각본을 六刊本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添入補刻된 판본은 재간행으로 보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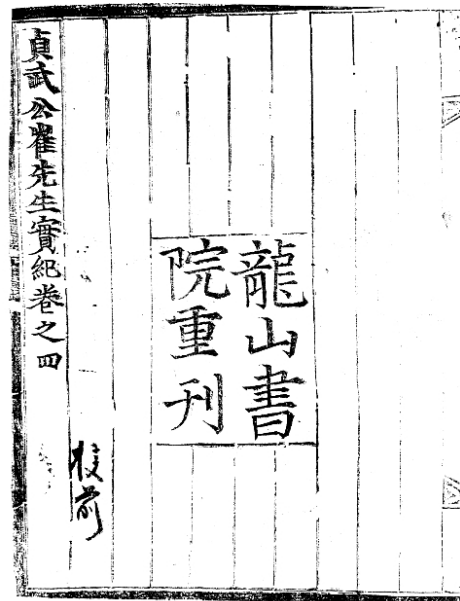
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1784년 중간본의 간행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최진립 실기의 이본에 대해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최진립의 실기는 현재 6종의 이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각각의 이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初刊本으로 서명은 『貞武公崔先生實記』이며, 총 5권2책이다. 1739년 함경북도의 明川府에서 간행되었으며, 權相一의 서문과 李德標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권상일의 서문과 이덕표의 발문에 따르면, 최진립이 죽은 뒤 104년이 지난 1739년에 최진립의 외증손 이덕표가 그의 유문을 수습하였고, 현손 崔慶老가 明川都護府使로 재수됨에 따라 명천부에서 『정무공최선생실기』를 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초간본의 간기(<그림 1> 참조)에는 ‘明川府開刊, 龍山書院藏’과 함께 ‘崇禎紀元後再己未季夏下浣’이라는 표기가 있어 1739년 명천부에서 간행되었고, 이후 책판은 경주 용산서원으로 이관되어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진립 실기의 두 번째 이본은 초간본의 添入補刻本이며, 초간본 서명의 ‘實記’가 ‘實紀’로 변경되어 『貞武公崔先生實紀』로 간행되었다. 초간본과 동일하게 5권2책이며, 권상일의 서문과 이덕표의 발문, 동일한 간기가 수록되어 있으나, 1751년에 쓴 鄭重器의 발문이 추가되어 있다. 정중기 발문에서는 최진립의 증손자 崔迪基가 초간본에 빠진 유문과 잡문 등을 수습하고, 초간본 책판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보각한 것(添入補刻)임을 밝혔다.



<그림 1> 초간본 간기
(1739년 간행)



<그림 2> 중간본의 첨입보각본 간기
(1800년 이후 간행)

1739년과 1751년의 경우 초간본 및 초간본의 첨입보각본으로, 1784년본을 중간본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이후 간행본은 중간본의 보각본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간행본은 1784년 용산서원에서 간행한 重刊本이며, 첨입보각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改刻한 판본이다. 서명은 1751년 첨입보각본과 동일하지만, 전체 판목을 새로 간행하여 5권2책에서 4권2책으로 구성이 바뀌었다. 이전 판본의 서발문에 1775년 丁範祖의 서문과 1784년 李鎭宅의 발문이 추가되었다. 추가된 서발문에 의하면, 최진립의 5세손 崔宗謙이 최진립의 유문을 다시 讎校하고 刪削하여 1751년 간행본에 빠진 내용을 추가하였고, 연보를 간략하게 줄여 부록을 편차하였으며, 이를 위해 책판을 완전히 새로 판각하여 간행하였다고 하였다.

네 번째 이본은 1784년 중간본 이후 첨입보각된 판본이다. 첨입보각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박장승의 연구에서는 정조조가 끝난 1800년 이후로 추정하였다. 서명 및 권책수는 중간본과 동일하며, 서발문의 내용도 동일하다. 다만, 이전보다 권1의 世系圖 인물이 추가되었다. 또한 중간본 권4 마지막 부분이 ‘家廟賜祭文’으로 끝나는 반면, 이 인본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書院記’, ‘書院記後’, ‘靑風樓記’가 추가 수록되었다. 발문의 내용은 동일하나 순서가 바뀌었는데, 1784년 중간본 발문은 李鎭宅(1784)-李德標(1738)-鄭重器(1752) 순인 반면, 중간본의 첨입보각본에서는 작성연도의 순서에 따라 이덕표-정중기-이진택 순으로 변경되었다. 마지막 권말에는 중간본에 없던 간기가 수록되었는데, ‘龍山書院重刊’이라 표기하였다(<그림 2> 참조).

다섯 번째 간행본은 1875년 첨입보각본이다. 가장 큰 변화는 서명이다. 이전 판본에서는 『정무공 최선생실기』라는 서명을 사용하였으나, 1875년부터는 『潛窩先生實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서명의 경우 이전 판목에 변경된 서명을 첨입보각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서문은 이전 판본과 동일하게 권상일과 정범조의 서문이 수록되었으나, 발문의 경우 이전 판본의 발문을 모두 삭제하고 李象靖, 李敦禹, 崔世鶴의 발문을 수록하였다. 이돈우와 최세학의 발문에 의하면, 『國朝藝文考』에서 최진립의 호가 ‘潛窩’라는 것을 발견함에 따라 『정무공최선생실기』에서 『잠와선생실기』로 고치고, 『尊周錄』과 『明陪信傳』에 실린 최진립의 열전 등을 찾아 추가로 수록하였다고 하였다. 이전 책판에 필요한 부분만 보각하고, 추가된 내용을 첨입하여 간행한 것이다.

마지막 이본은 1904년 첨입보각본이다. 1871년에 용산서원이 훼손된 이후, 1904년에 후손과 향중 사림에서 다시 제단을 설치하여 용산서원을 복원하고 享祀하였는데, 이 시기에 마지막 판본의 첨입보각이 이루어졌다. 1875년 판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마지막에 ‘壇享告由文’을 보각하여 추가하였다.

2.2 최진립 실기 간행과 관련된 현존 고문서의 현황과 내용

경주 용산서원 및 잠와종택 종가와 지파에는 오랫동안 소장되었던 경주최씨 가문의 고문서가 3,500여 점이 남아있다. 이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정리하여 2000년 『고문서집성 50』과 『고문서집성 51』 총 2책으로 간행된 바 있다. 그 가운데 최진립 실기 간행과 관련된 고문서 자료는 6건으로 그리 많지 않지만, 당시 최진립 실기 간행과정과 배경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6건의 고문서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으며, 각각의 자세한 내용을 작성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최진립 실기 간행과 관련된 현존 고문서 현황

	시기	문서종류	발급자(작성자)	수취자	비고
1	1737년	完議	용산서원	-	간행장소 관련
2	1784년	刊役所用下記	용산서원 간역유사	-	1784년 중간본 간행비 관련
3	1784년	土地賣買明文	용산서원 별고유사 등	용산서원 유사	1784년 중간본 간행비 관련
4	1824년	通文	경주향교	용산서원	1875년 보각본 간행 논의 관련
5	1824년	答通	옥산서원	용산서원	1875년 보각본 간행 논의 관련
6	1874년	刊役執事記	용산서원	-	1875년 보각본 실무자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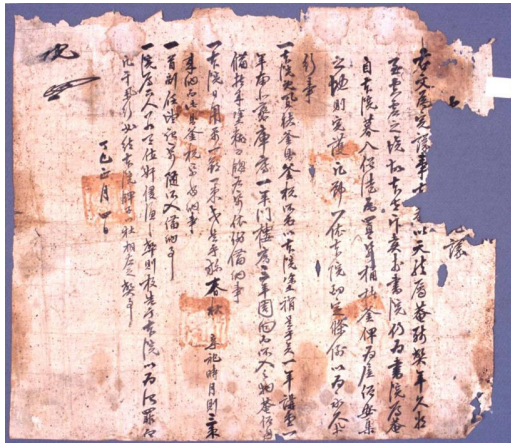
최진립 실기의 간행과 관련된 첫 번째 고문서(<그림 3> 참조)는 1737년 용산서원에 부속된 天龍寺 西菴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등과 관련하여 용산서원에서의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지키도록 합의한 完議이다. 그 내용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글은 완의(完議)하기 위한 일로 작성한다. 본 암자는 천룡사(天龍寺)에 소속된 암자로서 폐폐해진지 오래되어 장차 빈터만 남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본 사찰에서 이 암자를 서원에 내다팔아 그대로 서원 소속의 암자가 되었다. 본 서원에서 승도들을 모아 지통(紙桶)과 닥나무 삶는 솥[楮釜]를 마련하여 거처하는 승려들이 편안히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삼게 해주었다. 그러하니 완호(完護)하는 범절은 일체 본 서원이 결정한 조례를 따라서 영구히 거행할 일이다. ① 하나, 본 서원이 이미 닥나무 삶는 솥[楮釜]을 마련하였으니, 부세(釜稅)의 소출로 본 서원의 도배를 하되, 한 해는 강당(講堂), 한 해는 남북 재실창고의 방, 한 해는 문루(門樓)의 방으로 하여 삼 년 주기로 할 것이다. 들어가는 물건은 암자의 승려들이 스스로 준비해 가지고 와서 바르고 풀칠하며, 창호지는 전례대로 갖추어 납부할 일. ② 하나, 본 서원이 날마다 쓰는 종이는 한 달에 한 묶음씩이며, 봄가을 향사를 지내는 달은 세 묶음을 가지고 와 납부하되, 이것은 부세지(釜稅紙)로 마땅히 납부할 일. ③ 하나, 수임(首任)과 부임(副任)의 망기지(望記紙)는 들어가는 바대로 갖추어 납부할 일. ④ 하나, 서원에 속한 하인들이 만약 농간이나 침탈하는 폐단을 일삼는다면 본 서원에 날날이 고하여 죄를 다스리며, 여간한 거행(擧行)은 반드시 본 서원의 배자[牌子]를 기다려 서로 어긋나는 폐단을 막을 일. 정사년 정월 4일 원[휘필] (서암)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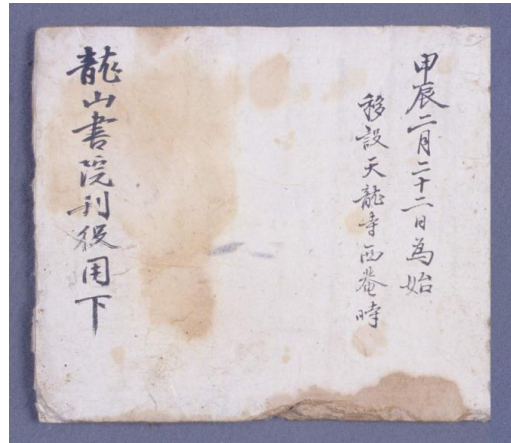
완의는 서원·향교·문중·계·동중 등 일련의 조직에서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적어 그것을 서로 지키도록 작성한 문서이다. 1737년 용산서원에서 완의를 작성하기

5) “□…□ 右文爲完議事. □[本菴]以天龍屬菴, 殘弊年久, 將至空虛之境, 故本寺斥賣於書院, 仍爲書院屬菴. 自本院, 募入僧徒, 爲置紙桶楮釜, 俾爲居僧安集之地, 則完護凡節, 一依本院酌定條例, 以爲永久舉行事. 一. 本院既置楮釜, 則釜稅所出以, 本院塗繕是乎矣, 一年講堂, 一年南北齋庫房, 一年門樓房, 三年周回. 而所入之物, 菴僧自備, 持來塗糊, 而隱戶紙依例備納事. 一. 本院日用紙, 一朔一束式是乎於, 春秋享祀時月, 則三束來納, 而此則釜稅紙當納事. 一. 首副任望記紙, 隨所入備納事. 一. 院屬下人, 若有作奸侵漁之弊, 則校告于本院, 以爲治罪, 而凡干舉行, 必待本院牌子, 以杜相左之弊事. 丁巳正月四日 院[揮筆] (署押)”

이전에, 천룡사 소속의 서암은 오랫동안 빈터로 유지되었기에 천룡사에서는 서암을 용산서원에 팔았다. 1737년 당시 서암은 용산서원의 소유인 상태였으며, 용산서원에서는 승려들을 모집하여 종이 만드는 지통과 닥나무 삶는 솥을 제공하였다. 모집한 승려들은 서암에서 종이를 만들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들이 용산서원을 위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결정하여 완의에 기록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그림 3> 1737년 용산서원에서 합의한 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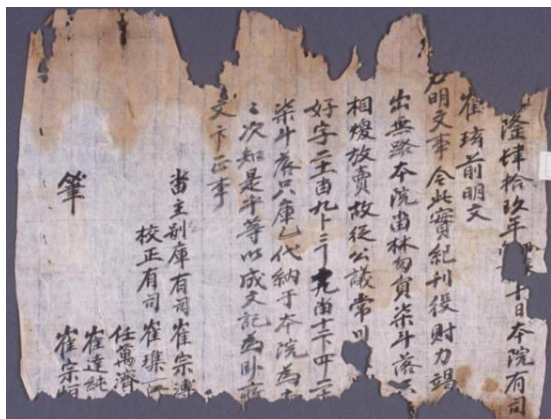


<그림 4> 1784년 용산서원 간역소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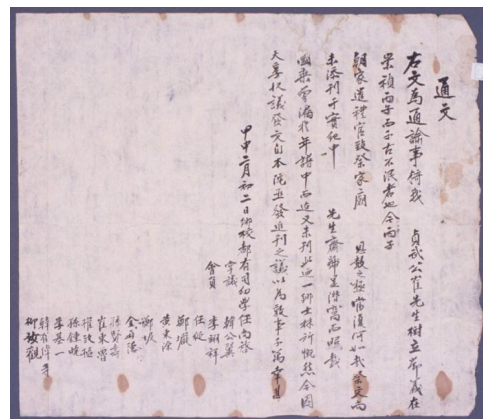
이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닥나무 삶는 솥에 부과되었던 釜稅에 따른 부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원을 도배하는 일을 부과하였다. 도배에 필요한 풀과 창호지 등의 물품은 서암의 승려들이 준비하도록 하였고, 3년을 주기로 첫 번째 해는 서원의 강당, 두 번째 해는 南・北齋庫房, 세 번째 해는 門樓房을 도배하도록 하였다. (2) 용산서원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종이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한 달에 1束씩 납부하며, 향사가 있는 달에는 3속씩 납부하도록 하였다. (3) 首任과 副任의 望記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종이는 필요한 만큼 납부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천룡사 서암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부분 종이 제작과 관련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서원 도배를 위한 창호지・도배지, 서원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日用紙, 望記紙 등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종이 제작 등 서암에서의 물적 지원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이후 실기 간행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였으며, 최진립 실기 중간본 간행 사업이 천룡사 서암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두 번째 관련 고문서는 1784년 최진립 실기 중간본 간행과정에 작성된 간행비 지출장부 『刊役所用下記』이다(<그림 4> 참조). 1784년 2월 2일 書寫 작업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4월 1일까지 都監・刻手・冊匠・畫工 등 인력들의 작업이 완료된 시기까지 총 88일 동안 소비한 돈과 쌀의 내역을

기록하였다. 관각한 실기의 서사, 책판 관각, 인출 등의 작업에 소요된 인건비와 재료비뿐만 아니라, 88일간 간역소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소비하였던 술과 담배, 고기·생선 등의 음식들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다. 『간역소용하기』는 이 논문에서 다룬 가장 핵심자료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그림 5> 1784년 윤3월
실기 간행을 위한 서원 토지매매명문



<그림 6> 1824년 경주향교에서
용산서원에 보낸 통문

세 번째 자료는 1784년 윤3월에 토지를 상환하며 작성한 明文이다(<그림 5> 참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륭 49년 갑진년(1784) 윤3월 10일 본원 유사 최현(崔瑗)에게 작성해 주는 명문(明文). 이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이 실기(實紀)의 간역(刊役)에 필요한 재력이 다하여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본원의 논 임물원(林勿員)에 있는 7마지기를 상환(相換)하여 방매(放賣)하려 한다. 그런 까닭에 공의(公議)에 따라 상천원(常川員)에 있는 호(好)자 21번지 논으로 수확량이 9짐 3못인 곳, 19번지 논으로 수확량이 12짐 4못인 곳, □□□ 7마지기의 곳을 본원에 대납(代納)할 것이므로 □□□ 차지한 것으로 문기를 작성하였는바 이 문기를 가지고 바름을 분별할 일이다. 논주인 별고유사(別庫有司) 최종부(착명), 교정유사(校正有司) 최집(착명), 임만제(착명), 최달순(착명), 필집 최종향(착명)⁶⁾

당시 최진립 실기의 중간본 간행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는데, 別庫 소유의 常川員 논 7마지기를 용산서원 소유의 林勿員 논 7마지기와 상환하며 해당 명문이 작성되었다. 별고 소유의 논을

6) “□[乾]隆祥拾玖年 甲□[辰]閏三月十日 本院有司 崔瑗前 明文. 右明文事. 今此實紀刊役, 財力竭□[盡], □[辦]出無路, 本院番, 林勿員柒斗落只□□□, 相換放賣. 故從公議, 常川□[員]□□□ 好字二十一番九卜三束, 十九番十二卜四束, 二十□□□, 柒斗落只庫乙, 代納于本院爲□[去]乎], □□□, 次知是乎等以, 成文記爲臥所, □□□[持此]文下正事. 番主 別庫有司 崔宗溥(着名), 校正有司 崔(玉+集)(着名), 任萬濟(着名), 崔達純(着名), 筆 崔宗恒(着名)”

용산서원 논과 상환한 이후 용산서원 소유가 된 상천원 논 7마지기는 간행비 마련을 위해 방매된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다룰 『간역소용하기』에는 간행비 마련을 위해 방매한 토지 목록 가운데 ‘常川畚價 文柒拾兩’이 표기되어 있다. 이는 해당 명문에서 용산서원으로 상환하여 넘긴 ‘常川畚畝’ 7마지기가 이후 70냥에 방매되었고, 토지 방매를 통해 마련한 70냥이 실제 간행비에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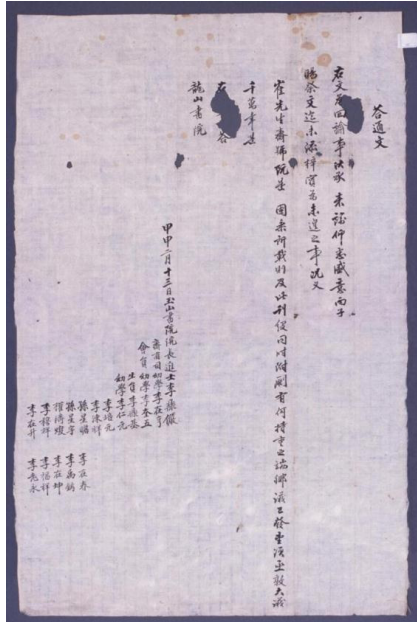
최진립 실기 간행과 관련된 네 번째 고문서 자료는 1824년 2월 2일에 경주향교에서 용산서원으로 보낸 通文이다(<그림 6> 참조). 통문은 서원·향교·문중·유생·결사 등에서 동급의 관계 기관 및 관련 인원에게 공동의 논의사항을 통지하거나 통고하는 문서이다. 경주향교의 통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문(通文). 이 글은 통지하여 알리기 위해 작성합니다. 아! 우리 정무공 최선생[崔震立]이 절의를 세운 일이 승정 병자년(1636)에 있었으니, 천고에 없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이번 병자년에 조정에서 예관(禮官)을 보내 가묘(家廟)에 치제(致祭)하게 하였으니, 은수(恩數)의 지극함이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제문이 실기(實紀)에 새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의 재호(齋號)가 ‘잠와(潛窩)’임은 사서(史書)에 밝게 실려 있는데도, 일찍이 연보에 누락되어 아직도 새겨 넣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온 고을의 사림들이 탄식하는 바입니다. 이제 대향제(大享祭)를 지냄으로 인해 의논을 수습하여 통문을 띄우니, 본원[용산서원]에서 빨리 간행하자는 의논을 일으켜 일을 성사시킨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갑신년 2월 초2일, 향교 도유사 유학 임상계, 장의 한공익, 회원 이익상·임연·정암·황동원·정급·김재덕·손현수·최동노·권치주·손종효·이기일·한유타·류여관 등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84년 최진립의 실기인 『정무공최선생실기』 중간본이 간행되었고, 이후 1800년 직후 중간본의 첩입보각본이 간행되었다. 이때만 해도 후손들이 최진립의 아호를 찾지 못해 그의 시호인 貞武公을 넣어 서명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의 경주향교 통문에 의하면 기존의 역사기록에 최진립의 호가 ‘잠와’임이 실려 있다고 하였다. 또한 1816년 조정에서 내려준 賜祭文이 실기에 수록되지 못한 점과 연보에 ‘잠와’라는 호가 누락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용산서원에서 최진립 실기의 재간행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경주향교의 의견을 통문으로 전달하였다. 이후 1875년경 최진립의 호를 사용하여 『잠와선생실기』라는 서명으로 첩입보각본이 간행될 수 있었다.

다섯 번째 고문서 자료는 앞서 1824년 2월 2일 경주향교에서 보낸 통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같은 해 2월 13일에 옥산서원에서 용산서원에 보낸 答通이다(<그림 7> 참조). 답통은 통문에 대한 답신을 말한다. 1824년 옥산서원의 답통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通文. 右文爲通諭事. 猗! 我貞武公崔先生, 樹立節義, 在崇禎丙子, 而千古不泯者也. 今丙子, 朝家遣禮官, 致祭家廟, 恩數之極, 當復何如哉? 祭文尚未添刊于實紀中, 先生齋號是潛窩, 而昭載國乘, 曾漏於年譜中, 而迨又未刊, 此迺一鄉士林所慨然. 今因大享, 收議發文, 自本院亟發進刊之議, 以爲敦事, 千萬幸甚. 甲申 二月初二日 鄉校 都有司 幼學 任尙啓, 掌議 韓公翼, 會員 李翊祥, 任紆, 鄭瓏, 黃東源, 鄭玢, 金再德, 孫賢壽, 崔東魯, 權致樞, 孫鍾曉, 李基一, 韓有倬, 柳汝觀 等”



<그림 7> 1824년 옥산서원에서
용산서원에 보낸 답통

답통문(答通文). 이 글은 회신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보내주신 통문을 삼가 받아보고 성대한 뜻을 다 알았습니다. 병자년의 사제문(賜祭文)을 아직 실기(實紀)에 새겨 넣지 않은 것은 실로 미처 하지 못한 일입니다. 더구나 최선생[崔震立]의 재호(齋號)가 이미 사서에 실려 있으니, 이번 간역에 함께 새기는 일에 신중을 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향의(鄉議)가 이미 일어났으니, 바라건대 속히 대의(大議)를 돕게 된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위 통문을 용산서원(龍山書院)에 답함. 갑신년 2월 13일 옥산서원 원장 진사 이정엄, 재실유사 유학 이재형, 회원 유학 이규오, 생원 이정기, 유학 이인원, 이배원, 이숙상, 손성침, 손성우, 권제환, 이목상, 이재승, 이노영, 이복상, 이재곤, 이우현, 이재춘⁸⁾

용산서원에서 최진립 실기 재간행에 대한 의견을 옥산서원에 통문으로 먼저 보냈고, 위의 답통은 용산서원 통문에 대한 옥산서원의 답신에 해당된다. 옥산서원 답통의 내용은 1824년 2월 2일 경주향교에서 보낸 통문과 거의 유사하다. 1816년 사제문이 실기에 수록되지 못한 점, 史書에서 최진립의 호를 찾았으니 실기에 수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진립 실기의 재간행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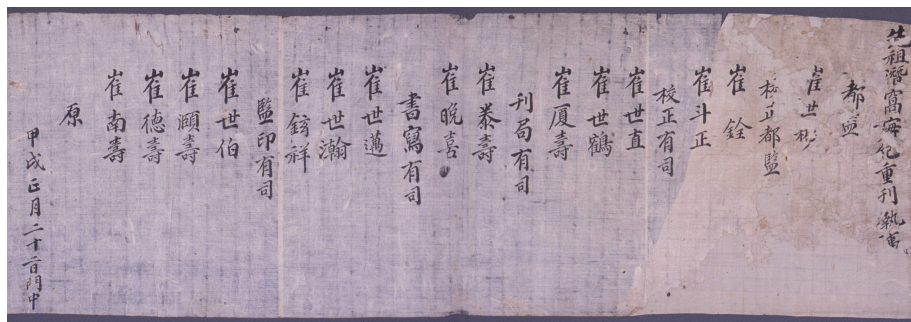
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통문 자료는 지역에서의 문집·실기 등의 출판에 있어 향교, 서원 등 지역의 중요 기관에서의 공론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용산서원에서 최진립 실기의 재간행을 위해 출판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통문이라는 소통방식을 통해 제기하였고, 이를 통해 중요 기관과 지역 인사들의 출판에 대한 공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

마지막 자료는 1874년 1월 22일에 작성된 刊役執事記이다(<그림 8> 참조). 執事記는 서원·향청·문중 등에서 중요 행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업무를 분장하고, 업무와 담당자 등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1874년 실기 간역집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조(先祖) 잠와실기(潛窩實紀) 중간(重刊) 집사기(執事記). 도감(都監) 최세□, 교정도감(校正都監) 최전·최두정, 교정유사(校正有司) 최세직·최세학·최하수, 간국유사(刊局有司) 최태수·최만희, 서사유사(書寫有司) 최세매·최세한·최현상, 감인유사(監印有司) 최세백·최희수·최덕수·최남수 끝. 갑술 정월 22일 문중⁹⁾

- 8) “答通文. 右文爲回諭事. 伏承來諭, 仰悉盛意. 丙子賜祭文, 迄未添梓, 實爲未遑之事. 況又崔先生齋號, 既是國乘所載, 則及此刊役, 同時附闕, 有何持重之端? 鄉議已發, 望須亟敦大議, 千萬幸甚. 右 □[文] 答 龍山書院. 甲申二月十三日 玉山書院 院長 進士 李鼎儼, 齋有司 幼學 李在亨, 會員 幼學 李奎五, 生員 李鼎基, 幼學 李仁元, 李培元, 李涑祥, 孫星瞻, 孫星宇, 權濟煥, 李穆祥, 李在升, 李老永, 李福祥, 李在坤, 李禹鉉, 李在春.”
- 9) “先祖潛窩實紀重刊執事記. 都監 崔世□, 校正都監 崔銓·崔斗正, 校正有司 崔世直·崔世鶴·崔厦壽, 刊局有司 崔泰壽·崔晚喜, 書寫有司 崔世邁·崔世瀚·崔鉉祥, 監印有司 崔世伯·崔源壽·崔德壽·崔南壽, 原. 甲戌 正月 二十二日 門中”

이 자료는 『잠와선생실기』를 간행하기 한 해 전인 1784년 1월에 간행 업무를 분담하고 해당 업무의 담당자를 결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업무 분장은 크게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업무별로 총책임자인 都監 1명, 교정 책임자인 校正都監 2명, 교정 실무자인 校正有司 3명, 판각 실무자인 刊局有司 2명, 서사 실무자인 書寫有司 3명, 인출 실무자인 監印有司 4명으로 구성하였다. 현재 각 문중에는 이와 같은 간역소 집사기가 상당수 남아 있으며, 이를 통해 간역소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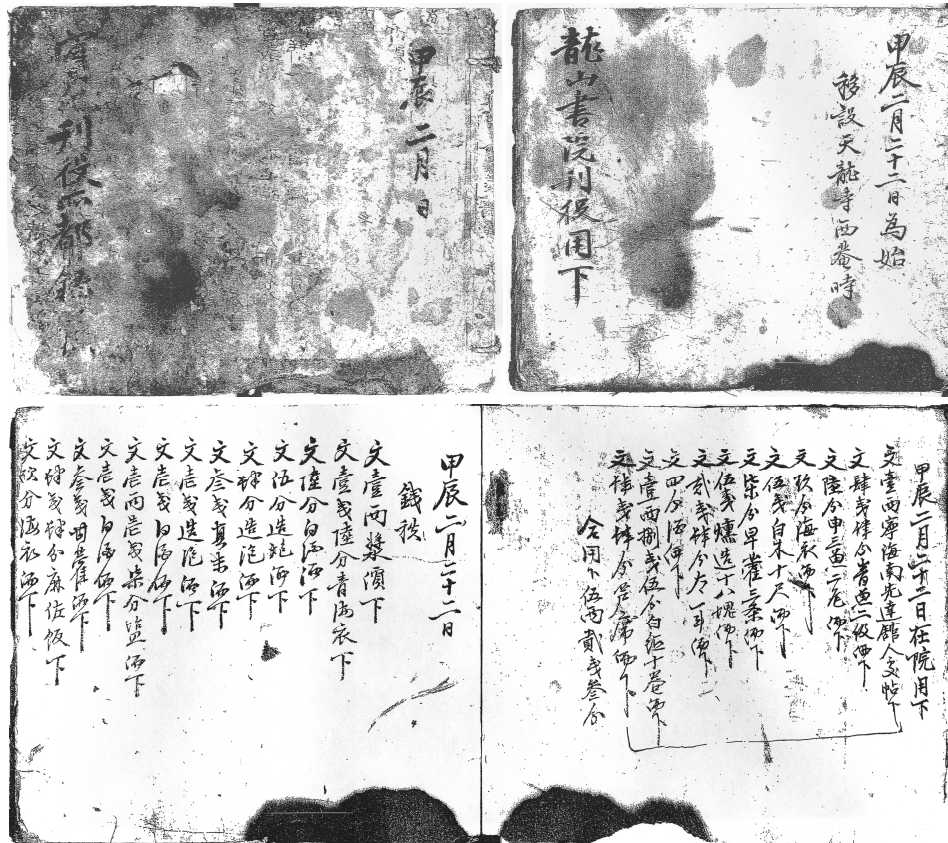


<그림 8> 1784년 『잠와선생실기』 간역집사기

2.3 1784년 「刊役所用下記」의 구성과 내용

앞서 소개한 6건의 고문서 자료 가운데 두 번째 자료인 1784년에 작성된 「간역소용하기」를 분석해 보겠다. 「간역소용하기」는 경북 內南面 伊助里 경주최씨 종가에 전승되었으며, 200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경주최씨 자료를 추가 조사하며 발굴한 자료이다.¹⁰⁾ 크기는 19.1×23.0cm이며, 2장의 앞표지와 1장의 뒤표지 이외에 22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측 상하에 2개의 구멍을 내어 종이끈으로 묶은 成冊 형태의 고문서이다. 2장의 앞표지 가운데 첫 번째는 용하기가 완성된 이후 원표지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되었으며, 두 번째 표지는 1784년 당시 만들어진 원표지로 보인다. 원표지에는 “甲辰二月二十二日爲始 移設天龍寺西菴時”라고 쓴 작성시기와 장소, “龍山書院刊役用下”라는 제목이 있고(<그림 9>의 上右), 추가된 표지에는 “甲辰二月日”이라고 쓴 작성시기와 “實紀刊役所都錄”이라는 제목이 필사되어 있다(<그림 9>의 上左). 본문에는 1784년 2월 2일부터 3월, 윤3월을 거쳐 4월 1일까지의 작업 과정에서 소비되었던 돈과 쌀의 내역을 기록하였다.

10) 장서각에서 조사한 이후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여 현재 MF번호 35-13445에 수록되어 있다.



<그림 9> 1784년 「간역소용하기」의 현표지(상좌)·원표지(상우) 및 본문 錢秩(하)

「간역소용하기」의 본문은 크게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1784년 2월 2일 용산서원에서의 寫書 작업을 시작으로, 2월 22일 오후 간역소가 설치된 천룡사 서암으로 장소를 옮기기 이전까지의 지출내역이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 糧米秩과 錢秩을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전자의 양미질(④)에서는 2월 2일부터 22일 오전까지 20.5일간 소비되었던 쌀의 양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하였고, 후자의 항목(⑤)에서는 날짜 구분 없이, 2/2~2/22까지 소비하였던 돈의 금액과 내역을 기록하였다. 두 번째 영역(⑥)에서는 간역을 위해 마련하였던 금액과 간행비로 지출하였던 금액을 한 페이지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마지막 영역에서는 2월 22일 오후 간역소를 천룡사 서암으로 옮긴 이후 소비되었던 錢秩과 糧米秩을 기록하였다. 전자의 전질에서는 크게 4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① 2월 22일 용산서원에서 소비하였던 지출내역(④), ② 천룡사 서암에서 2월 22일부터 윤3월 10일까지 소비한 지출내역(⑥), ③ 천룡사 서암에서 판각이 완료된 이후 刻手을 보낸 윤3월 11일부터 14일에 刻手, 都刻手, 陰刻手, 木手, 刊本書寫人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지출내역(⑦), ④ 새로 판각한 책판의 인출과 장판각에

매달 懸板의 工役 작업이 있었던 윤3월 15일부터 4월 1일에 소비한 지출내역(㉔) 등으로 기록하였다. 후자의 양미질(㉕)에서는 2월 22일 오후부터 4월 1일까지 총 67.5일간 소비되었던 쌀의 양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술하였다.

<표 3> 1784년 「간역소용하기」의 구성과 내용

구분		구성	분량 (면)	지출 장소		米・錢秩		해당 내용
				용산 서원	천룡사 서암	米秩	錢秩	
2/2~ 22 오전	㉑	糧米秩	3	○		○		2/2~2/22 날짜별 쌀소비량
	㉒	錢秩	3	○			○	2/2~2/22 지출 錢秩
전체내역	㉓	간행비 전체 요약	1					전체 입출내역 및 債文未報秩
2/22 오후 ~4/1	㉔	在院 用下	1	○			○	2/22 지출 錢秩
	㉕	錢秩 用下	10.5		○		○	2/22~윤3/10 지출 錢秩
	㉖	放送刻手 用下	1		○		○	윤3/11~14 지출 錢秩
	㉗	新刊印出・懸板工役時 用下	3.5		○		○	윤3/15~4/1 지출 錢秩
	㉘	糧米秩	19		○	○		2/22~4/1 날짜별 쌀소비량

「간역소용하기」 내용 가운데 날짜별로 기록된 것은 맨 앞에 작성된 2월 22일 이전까지 양미질(㉑)과 가장 마지막 작성된 22일 이후 양미질(㉕)뿐인데, 날짜별 소비된 쌀량만 기록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지출항목을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지출된 현금내역을 기록한 錢秩은 날짜별 기록이 아니라 크게 5개 영역별(㉑・㉒・㉕・㉖・㉗)로 지출내역을 나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출항목은 알 수 있으나, 날짜별 지출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 장부자료의 특성상 이와 같은 자료적 한계가 분명하지만, 「간역소용하기」를 통해 간역소에서 작업했던 인물과 그들의 인건비, 소비되었던 물품과 음식, 술과 담배 등의 기호식품과 선물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통해 18세기 후반 서원에서의 서책 간행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3. 간행과정과 간행비용

「간역소용하기」는 간행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자료이지만, 대략적인 간행과정과 배경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해당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3장에서는 1784년 최진립 실기 중간본의 간행장소, 간행과정, 간행비용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3.1 간행장소

간기에 표기된 공식 간행처는 간행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포괄적 의미에서 간행주체를 의미한다. 간기의 간행처가 실제 간행장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며, 간행처와 간행공간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 있다.¹¹⁾ 1784년 최진립 실기 중간본의 간행주체는 용산서원이다. 하지만 서사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간행작업은 용산서원이 아닌 천룡사 서암에서 이루어졌다. 1784년 최진립 실기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에서 간행처와 실제 간행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¹²⁾

『간역소용하기』는 1784년 2월 2일에 목판에 새길 최종 사본인 판하본을 필사하러 “書寫人 崔生”이 용산서원으로 오면서 糧米秩의 내용이 시작된다.¹³⁾ 서사 작업은 용산서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일 동안 용산서원에서 서사와 교정 관련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후 2월 22일 오후에 天龍寺 西菴으로 옮겨가 간역소를 설치하였고,¹⁴⁾ 68일간 책판 간행과 실기 인출 작업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간행장소는 용산서원이 아니라 천룡사 서암이라고 할 수 있다.

책판의 간행공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간행공간의 조건으로 3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¹⁵⁾ 첫 번째는 간행에 필요한 물력과 인력을 확보하기 용이한 위치이다. 교정과 서사 작업을 반복하여 완성도 높은 원고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수·목수 등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판목·종이 등의 물력 조달이 용이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책판 간행에 참여한 인력들을 위한 작업 공간과 식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즉 원고를 필사하는 사람, 교정하는 사람, 판각하는 사람, 인출하는 사람, 장인을 관리하는 사람, 식사 준비하는 사람, 매일의 지출과 작업량을 기록하는 사람 등 많은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작업 공간과 숙식이 가능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간행주체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소통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간행과정에서 수정 사항이 발견되기도 하고, 조직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교정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이를 즉각적으로 판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가능한 거리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784년 최진립 실기의 실질적 간행장소인 천룡사 서암이 이러한 간행공간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천룡사와 천룡사 소속 암자인 서암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1) 손계영, “조선후기 책판의 간행공간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9(2011), 372-375.

12) 1815년 『백불암선생문집』의 간행처는 대구 경주최씨 백불암 종가이지만, 실제 간행공간은 고령의 鳳泉書堂이었으며, 『대계선생문집』의 경우에도 간행처는 고성이씨 花樹契와 대계 후손가이지만 실제 간행은 默溪의 각수 집에서 진행되었다(손계영(2011), 374-375).

13) 『刊役所用下記』 “刊役設始書寫時用下記 二月初二日 書寫人崔生來”

14) 『刊役所用下記』 “刊所移設天龍寺西菴”, “甲辰二月二十二日爲始 移設天龍寺西菴時”, “二十二日 米肆升朝下午移設西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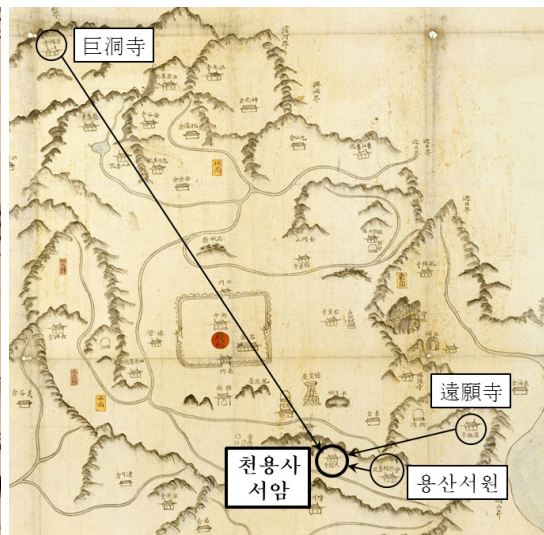
15) 손계영(2011), 375-385.

천룡사는 경주시 내남면 高位山 天龍谷에 있는 불국사의 말사이며, 신라시대에 창건되었으나 신라가 망할 즈음에 폐사되었다. 1040년 崔薺顏에 의해 중창되었고, 조선시대에 명맥을 유지하다가 18세기 말 폐사되었다.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지도상에서 확인되는 용산서원과 천룡사지의 직선거리는 약 1.8km이며, 18세기 고지도에서 확인되는 용산서원과 천룡사의 위치는 <그림 10> · <그림 11>과 같다.

용산서원은 1699년에 경주부윤 李衡祥(1653-1733)이 마을 유림들과 더불어 창건하였고, 1711년에 ‘崇烈祠宇’로 사액되었으며, 이때 경주의 유림들이 모여 용산서원으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 때문에 조선후기 고지도에서는 ‘崇烈祠’ 또는 ‘崇烈祠書院’으로 표기되었다. <그림 10>의 輿地圖(규장각 古4709-68) 및 <그림 11>의 慶州都會(左通地圖)(규장각 古4709-26)에서도 ‘승렬사서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위치가 용산서원이며, 그 좌측에 ‘천룡사’가 위치하고 있다. 특히 <그림 10>의 천룡사 좌측에 ‘崇烈寺’라는 사찰이 보이는데, 사찰의 명칭으로 보았을 때 용산서원인 ‘崇烈祠’와 관계가 있을 사찰로 판단되며, 천룡사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최진립 실기의 판각이 이루어진 ‘천룡사 서암’일 가능성이 높다. 18세기 여지도에서 확인되는 ‘崇烈寺’가 1784년 실기 간행이 이루어진 천룡사 서암이라면, 판각이 이루어진 서암은 천룡사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용산서원과도 멀지 않은 위치이다.



<그림 10> 용산서원과 天龍寺, 천룡사 서암으로 추정되는 崇烈寺의 위치 (18세기 輿地圖)



<그림 11> 간행장소(천룡사 서암)와 물력·인력 조달 지역과의 지리적 위치 (18세기 慶州都會)

우선 천룡사 서암이 책판 간행공간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겠다. 서암이 소속되어 있는 천룡사에서는 조선시대 목판본 불서들이 간행된 바 있다. 『佛說大報父母恩重經』,¹⁶⁾ 『妙法蓮華經』¹⁷⁾ 등의 권말 간기에 17세기 ‘慶州府 天龍寺’에서 開刊되었음을 표기하였고, 『金剛般若波羅蜜經』¹⁸⁾의 간기에도 경주부 고위산 천룡사에서 重刊되었음을 기록하였다. 이는 곧 최진립 실기의 중간이 있었던 1784년 이전부터 천룡사에는 목판 간행과 서책 출판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책판간행이 있었던 서암은 용산서원에 매각되기 이전에는 천룡사에 소속된 암자였기에 천룡사의 간행 기술이 전해질 수 있었고, 천룡사와의 거리가 가까워 간행 인력의 교류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1737년 완의 내용과 같이 천룡사가 용산서원에 팔아 용산서원 소유의 암자가 되었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용지부부터 서원의 배접지·창호지·망기지 등 용산서원에 필요한 종이를 공급하던 곳이기 때문에 인출에 필요한 물력과 인력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역소용하기』에는 遠願寺 刻手 및 巨洞寺 승려가 간역 업무를 도왔던 상황이 나타나는데,¹⁹⁾ 이들이 소속된 사찰의 위치도 경주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력 지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11> 참조). 따라서 첫 번째 간행조건인 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력과 물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위치였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참여 인력들을 위한 작업과 식생활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다. 『간역소용하기』에는 참여 인력들에 대한 내용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 몇 명의 인력이 작업하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서암의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날짜별로 소비된 쌀량이 기록되어 있는데, 쌀의 소비량을 통해 언제 인력이 가장 많이 모였고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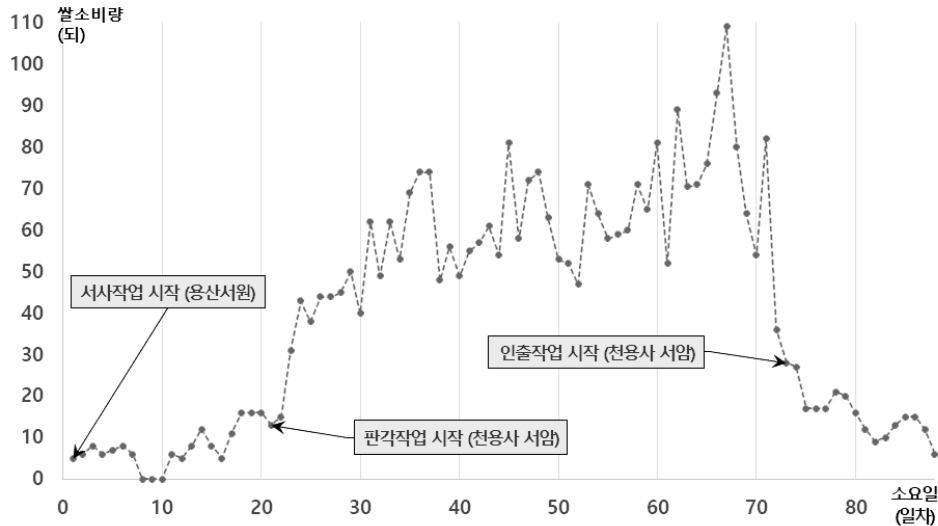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행작업은 총 88일간 진행되었는데, 그 중 20일 정도는 용산서원에서 원고 필사가 이루어진 서사작업으로 대략 3~5명이 식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1일차 오후에 천룡사 서암으로 간역소를 이동하여 판각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는데, 24~30일차에는 10~15명 정도, 31~61일차에는 15~30명 정도의 인력이 식사할 수 있는 쌀량이 소비되었다. 가장 많은 인력이 머물렀던 시기는 62~68일차로, 대략 20~40명 정도가 간역소에서 식사하며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 인출작업이 시작된 73일차부터는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88일차까지 3~10명 정도의 인원이 간역소에서 印出 및 粧冊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많은 인원이 과연 천룡사 서암에서 기거하며 작업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인원들 가운데 각수의 경우 도착한 날짜와 돌아간 날짜가 표기되어 있어 함께 기거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²⁰⁾

16) 목판본, 刊記: 康熙二十五年(1686)丙寅四月日 慶尙道慶州府南天龍寺開刊 (동국대 경주도서관 D223.58-대45; 서울대 중앙도서관 294.3319-B878ec; 계명대 동산도서관 294.3352-불설ㄷ; 영남대 도서관 古貴223.58-은중경-2).

17) 목판본, 刊記: 康熙二十七年戊辰(1688)五月日 慶尙道慶州府南高位山天龍寺開刊 (영남대학교 도서관 223.54-법화경ㄴ즈).

18) 목판본, 刊記: 慶尙道慶州高位山天龍寺重刻 (동국대학교 경주도서관 D223.53-금11).

19) 『간역소용하기』 “(二月)二十一日 米伍升夕下 遠願寺刻手來”, “(三月)二十四日 米壹升 巨洞僧下”



<그림 12> 간행작업 일자에 따른 쌀 소비량 (88일간)

또한 다양한 인력들의 소비 술값, 인력들에게 지불한 공임가 등의 지불항목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거쳐갔던 것을 볼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본을 필사하였던 서사인, 책판 등의 판목을 운반하였던 인력(板木運來人), 책판의 판각을 지휘하였던 都刻手와 실제 판각하였던 刻手, 판목과 장두목(마구리)을 마름질하였던 木手, 각종 못과 정 등 판각에 필요한 철물 연장을 만들고 고쳐주었던 冶匠, 가죽신을 만들었던 皮匠, 책판을 인출하고 책의 형태로 제본하는 작업을 하였던 冊匠 등이 간역작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외에도 용산서원의 諸員들, 간역소 식사를 준비하였던 支供僧, 간역소 생활에 필요한 땔나무를 관리하였던 負木僧, 창고의 출납과 회계 업무를 맡았던 庫子, 각종 허드렛일을 도왔던 노비와 하인, 주변에 연락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던 差使 등이 간역소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간중간 손님들도 찾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손님의 경우 ‘客’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고, 실명을 표기하기도 하였으며, 소속 사찰을 표기하기도 하였다.²¹⁾ 간역소인 천룡사 서암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이 다양하고도 많은 인원이 작업에 참여하고 생활하였다면 서암의 공간이 협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 『간역소용하기』 “(二月)十八日 米肆升午下 刻手來”, “(二月)二十一日 米伍升夕下 遠願寺刻手來”, “閏三月十一日 放送刻手”

21) 『간역소용하기』 “文伍分 客酒下”, “米參升 安菴僧隱東僧料飢下”

<표 4> 「간역소용하기」의 간역작업에 등장하는 인력

구분	「간역소용하기」에 기록된 해당 내용
書寫人	○乾柿一貼價下(3錢7分) 書寫人午饒飢, ○飴糖價下(1錢) 書寫人午饒飢, ○書寫手工先給下(1兩), ○書寫價下(1兩), ○刊本書寫價下(5兩)
板木運來人	○冊板運來人酒價下(5分), ○邑內人板子運來時下(2分)
刻手	○差使路資下(5分) 刻手招來時, ○刻手酒價下(3分), ○刻手酒價下(2分), ○刻手等別給下(2兩), ○刻手酒價下(3錢4分), ○刻手工價下(54兩8錢), ○刻手處別下記下(3兩), ○刻手等法繩布價下(1兩),
都刻手	○都刻手工價下(8兩), ○都刻手別帖下(1錢7分)
木手	○木手酒價下(4分), ○木手酒價下(6分), ○木手二人工價下(8兩), ○木手放送時酒價下(3錢), ○崔木手貸去下(1兩)
冶匠	○差使路資下(3分) 鐵釘冶來時, ○冶匠人手工下(5分), ○冶匠人酒價下(5分), ○冶匠人工價下(5錢)
皮匠	○皮匠人工價下(7分), ○皮匠人工價下(1錢5分)
大丁匠	○大丁酒價下(3分)
冊匠	○冊匠工價下(7兩4錢), ○冊匠人入去時下(6分), ○冊匠人行鞋價下(1錢6分), ○冊匠放送時酒價下(2錢)
書工	○書員手工下(3錢5分), ○書工放送時酒價下(2錢)
陰刻工	○陰刻工價下(1兩)
諸員	○酒價下 諸員來會時(1錢5分), ○都監歸時下(1錢)
支供僧	○支供僧先給下(1兩), ○支供僧下(2兩)
負木僧	○負木僧先給下(1兩), ○負木僧下(2兩)
庫子	○庫子處酒價下(2分), ○庫子酒價下(1分), ○庫子酒下(4分), ○庫子處帖下(2兩)
奴婢·下人	○見谷奴料下(米4升), ○院奴貳名下(米2升), ○差奴下(米2升), ○榮婢十月下(米1升), ○榮婢下(米1升), ○院下人等酒價帖下(5錢)
差使	○差使料米下(米3升), ○北面差使下(4分), ○東海再送差使下(6分), ○東海差使下(米2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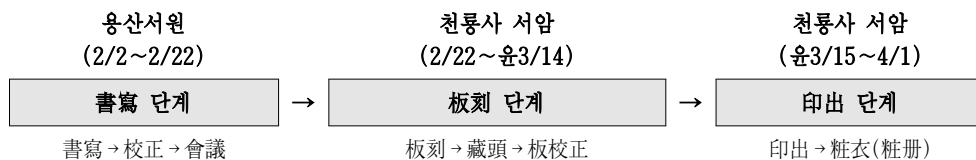
1815년 『백불암선생문집』의 간역소였던 고령 鳳泉書堂의 경우에는 간행주체인 대구 백불암 종중과 물리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서당 규모가 크지 않아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假家를 조성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백불암집 간역시 작성된 「刊役所下記」에는 假家木 값과 가가 조성시 役丁의 인건비 내역이 기록되어 있어 간역소 가가의 대략적인 규모를 추측할 수 있는데,²²⁾ 최진립 실기의 「간역소용하기」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간역소 천룡사 서암이 간행주체인 용산서원과 이조마을 경주최씨 종중과 멀지 않고, 이전의 소속 사찰이었던 천룡사와도 가까웠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외부 인력들이 이들 장소에서 기거하거나 생활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간역소 서암은 주변 환경으로 인해 참여인력의 작업 공간과 식생활 공간이 확보 가능한 공간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22) 손계영(2011), 385.

세 번째 조건은 간행주체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소통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는 장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거리적 측면에서 간행장소인 천용사 서암과 간행주체인 용산서원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웠다(<그림 10> · <그림 11> 참조). 간역을 위한 시스템이 있었는지는 관련 문서가 발견되지 않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74년 최진립 실기 첨입보각본 간행 당시 작성된 간역집사기(<그림 8> 참조)가 남아있어 대략적인 간역 조직과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다. 1874년 당시 간역 조직은 6개 영역으로, 총책임자 都監 1명, 교정 책임자 校正都監 2명, 교정 실무인 校正有司 3명, 판각 실무인 刊局有司 2명, 서사 실무인 書寫有司 3명, 인출 실무인 監印有司 4명 등으로 조직되었다. 이때에는 새로 판각하여 간행한 것이 아니라 이전 책판에 필요한 부분을 첨입보각한 것이기에 간역 조직이 상당히 단순하였지만, 1784년 간행작업은 완전히 새로 책판을 간행하였기 때문에 1874년보다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간역소용하기』에는 1784년 간역소 都監과 校正有司의 쌀소비량 · 술값 등의 지출내역 및 용하기 장부 책임자인 刊役有司의 서명 기록 등 간역소 조직 담당자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²³⁾ 간역소 조직과 시스템 전반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전무한 상황이다.

3.2 간행과정

앞서 <그림 12>의 쌀소비량 차트에서도 확인하였지만, 1784년 최진립 실기 간행과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다. <그림 13>과 같이 첫 번째 단계는 간행본 서사 단계이고, 두 번째는 판목에 새기는 판각 단계, 마지막은 판각된 책판을 찍어내는 인출 단계이다.



<그림 13> 1784년 최진립 실기 중간본 간행단계

첫 번째 서사 단계는 2월 2일부터 22일 오전까지 용산서원에서 진행되었다. 2월 2일에 서사인 崔生이 도착하여 작업을 시작하였고, 6일에는 刊本の 글씨를 쓸 때 글자 간격을 고르게 하기 위해 종이에 井間을 그리는 작업이 진행되었다.²⁴⁾ 2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용산서원 享祀로 작업이 잠시

23) 『간역소용하기』 “(二月)十六日 米伍升夕下 都監來”, “文貳錢伍分 陳鷄一首價下 都監呻吟時”, “(二月)十四日 米伍升夕下 校正有司來”, “(二月)十九日 諸員來會”, “文壹錢伍分 酒價下 諸員來會時”, “甲辰八月日 刊役有司 崔(署名)”

24) 『刊役所用下記』 “二月初二日 書寫人崔生來”, “(二月)初六日 … 米肆升夕下 刊本井間時一集來”

중단되었고, 12일부터 다시 서사 작업이 이루어졌다.²⁵⁾ 14일에 교정유사가 용산서원에 들어온 것으로 보아 이때 서사 작업이 대략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후에 각수가 도착하였고, 저녁에 간역소 총감독인 都監이 도착한 것으로 보아²⁶⁾ 당시에 수정 작업도 완료되어 완성본이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완성본에 대한 각수와 도감의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음날인 19·20일 이틀에 걸쳐 전체 諸員들의 회의가 진행되었고,²⁷⁾ 회의 결과에 따라 판각 날짜를 정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날인 21일에 遠願寺 刻手가 도착하였는데, 이는 판각 관련 자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음날인 22일 오전에 용산서원에서의 서사작업은 완전히 철수되었다.²⁸⁾

두 번째는 판각 단계이며, 이는 88일간의 간행시기 중 52일간 진행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2월 22일 오후에 천룡사 서암으로 옮겨 간역소가 설치되어 판각 준비가 시작되었다. 2월 22일 이전의 지출항목에서 ‘冊板木二十九立·懸板木三立價(6兩)’와 ‘冊板運來人酒價(5分)’ 등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천룡사 서암으로 옮기기 이전에 상당량의 판목 구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일 이후 지출항목에 의하면 ‘藏材木斫伐時酒價(8分)’, ‘邑內人板子運來時(2分)’ 등의 판목 운반과 관련된 지출이 있었고, ‘刊板價(4兩)’, ‘馬音洞板子(4錢)’, ‘刻板伍立價(9錢)’, ‘刊板價(1兩2錢)’ 등 이전의 구입 분량 정도 또는 그 이상의 판목을 22일 이후에 추가로 구입하였던 상황이 확인된다. 판목 구입뿐만 아니라 나무의 톱질 작업, 판각할 책판 형태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판각에 필요한 각도와 망치 등의 철물 준비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다.²⁹⁾ 이후 각수들의 판각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간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판각이 이루어졌던 기간 동안 쌀소비량으로 보았을 때 간역소에 가장 많은 인원이 기거하고 생활하였던 기간이었으며, 인건비의 지출 측면에서도 목수·책장 등의 다른 인력보다 각수에게 가장 많은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각수의 업무가 가장 중요했음을 말해준다(<표 5> 참조).

<표 5> 참여인력별 지출인건비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참여인력	刻手	都刻手	木手	冊匠	書寫手	支供僧	負木僧	陰刻工	冶匠	畫工
인건비	54兩8錢	8兩	8兩	7兩4錢	7兩	3兩	3兩	1兩	5錢5分	3錢5分

천룡사 서암에서의 지출항목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할 항목은 ‘藏頭銚丁價(5錢)’이다. 19세기 후반 성재집 간행시 작성된 『性齋先生文集刊所用下記』에서도 ‘藏頭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³⁰⁾

25) 『刊役所用下記』“自初九日至十一日 本院供 享祀時, 十二日 米參升朝下 …”

26) 『刊役所用下記』“(二月)十八日 … 米肆升午下 刻手來, 米伍升夕下 都監來”

27) 『刊役所用下記』“(二月)十九日 … 米陸升午下 諸員來會.” 2월 19일과 20일의 쌀소비량 각각 16되이며, 이는 용산서원에서의 작업 중 가장 많은 양이 소비되었던 날이다.

28) 『刊役所用下記』“(二月)二十一日 … 米伍升夕下 遠願寺刻手來, 二十二日 米肆升朝下 午移設西菴”

29) 『刊役所用下記』“文參錢 引鉅價下”, “文肆分 木手酒價下”, “文伍分 冶匠人手工下”, “文伍錢 大少丁價下”

30) 손계영(2015), 189-190.

이때의 藏頭는 책판의 좌우 양쪽에 손잡이 형태로 달았던 마구리를 의미하며, 책판에 장두목을 부착할 때 품삯으로 지출된 항목으로 보인다. 즉 두 번째 단계인 판각단계에서 마구리인 장두목을 부착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魚膠(2錢)’과 ‘粘米(5錢)’를 연달아 구입한 내역 역시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때 구입한 어교와 찰쌀은 모두 접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특히 어교는 민어 등 어류의 껍질·뼈·부레 등을 끓여 만든 풀로, 접착력이 매우 강해 나무를 붙이는데 탁월한 접착제로 쓰였다. 어교를 구입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판각 이후 책판에 잘못 새겨진 부분을 수정할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책판을 판각 후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의 두께를 얇게 오려 들어내고, 수정된 내용이 새겨진 동일한 크기와 두께의 나무 조각을 삽입하였으며, 이때에 어교 등의 접착제를 이용하여 나무 조각을 붙여 삽입하였다. 따라서 판각단계에서는 목판의 판각뿐만 아니라, 장두목 부착 및 판교정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표 6> 인출·장책에 소요된 재료비 및 인건비 내역

구분	冊匠 인건비·잡비	재료비	
		종이	장책용 실·종이
지출내역	冊匠工價(7兩4錢) 冊匠人入去時(6分) 冊匠人行鞋價(1錢6分) 冊匠放送時酒價(2錢)	白紙十卷價(1兩8錢5分) 冊紙價(18兩) 白紙價(9錢) 若木宅白紙價(1兩)	粧衣繭絲價(2錢) 粧衣不足紙價(1錢)
총금액	7兩8錢2分	21兩7錢5分	3錢

세 번째 단계는 인출단계이다. 『간역소용하기』에는 ‘閏三月十五日 新刊印出懸板工役時’라는 기록이 있다. 즉 73일차인 윤3월 15일에 완성된 책판을 인출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이때 현판 제작이 진행되었다. 인출단계는 책판의 인출 작업과 인출본의 장책 작업으로 구분되는데, 인출·장책 작업과 관련된 중요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종이 등의 재료비와 인출·장책 담당인력의 인건비가 있다(<표 6> 참조). 19세기 성재집 간행시 작성된 용하기에는 인출을 담당하였던 이들을 ‘印出工’이라 하였고, 인출공 인건비가 별도로 표기되었으나, 1784년 최진립 실기 중간본의 『간역소용하기』에서는 ‘인출공’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冊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책장이 인출부터 장책까지 모두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료는 종이인데, 4차례에 걸쳐 종이 구입비가 상당량 지출되었다. 책을 선장으로 제본할 때 필요한 繭絲 구입내역과 장책시 부족했던 별도의 종이 구입내역도 함께 기록되었다.

윤3월 15일에 진행된 인출작업과 함께 현판이 제작되었다. 이때 제작된 현판이 정확하게 어떤 건물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 책판이 보관되는 건물에 걸어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간역소용하기』에는 현판과 관련된 항목으로 懸板木(三立) 구입비 및 懸板采色價에 대한 내역이

있었으며, 현관을 판각하였던 인물로 추정되는 陰刻工 인건비로 ‘陰刻工價(1兩)’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현관 채색에 동원된 畫工과 관련된 항목으로 ‘畫員手工(3錢5分)’, ‘畫工放送時酒價(2錢)’, ‘畫匠料(米1升)’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상에서는 최진립 실기 중간본의 간행과정을 서사단계, 판각단계, 인출단계 등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 서사단계는 다시 사서·수정 작업과 회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고, 두 번째 판각단계에서는 판각준비 과정과 실제 판각작업, 마구리인 장두목 부착 작업과 판교정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인출단계에서는 인출과 장책 작업 및 현관 제작 작업 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3.3 간행비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역소용하기』의 3개 영역 가운데 두 번째는 간역을 위해 마련한 간행비의 출처와 지출 금액을 한 면에 정리한 내역이다(<표 3>의 ㉔에 해당).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1784년 최진립 실기 중간본의 간행비 출처와 지출

	구분	상세내역	비용	비중	총액
入	토지 방매로 마련한 자금	①門契畚 70냥 ②錢邑畚 37냥 ③仇良大畚 14냥7전 ④舍音洞畚 24냥 ⑤常川畚 70냥	215냥7전	79.7%	270냥 7전
	빌린 자금 [出債]	①箭川 [出債]20냥 ②若木宅 [出債]134냥-[債文報]107냥=27냥	47냥	17.4%	
	別庫 자금	別庫租作文 8냥	8냥	2.9%	
出	현금 지출 (錢秩 用下)	①[2/22 이전] 龍山書院에서의 用下 5냥2전3분 ②[2/22~윤3/10] 錢秩 66냥2전4분 ③[윤3/11~윤3/14] 放送刻手 用下 100냥 ④[윤3/15~4/1] 新刊印出·懸板工役時 用下 37냥8전7분	209냥3전4분	77.3%	270냥 7전
	쌀(糧米秩 用下)	糧米價 61냥3전6분	61냥3전6분	22.7%	

우선 마련한 간행비의 출처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門契畚, 錢邑畚, 仇良大畚, 舍音洞畚, 常川畚 등 문중계와 용산서원 소유의 토지를 방매하여 마련한 것으로, 전체 간행비의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두 번째는 出債로 빌린 자금이다. 箭川과 若木宅에서 20냥과 134냥을 빌렸으나, 중간에 약목택에 107냥을 갚아 총 47냥의 출채가 있었으며, 전체 자금의 17% 정도에 해당된다. 마지막은 용산서원 別庫의 자금으로 전체 자금의 3% 정도로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이상의 출처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여 간역비로 지출하였는데, 현금으로 지출한 錢秩과 쌀로 지출한 糧米秩로 구분하였다. 전자의 전질 지출이 전체 지출액의 77% 정도를 차지하고, 후자의 양미질

지출이 23% 정도를 차지하였다. 지출내역을 인건비, 간행자재비, 식재료비, 술·담배값, 기타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간행비 지출항목별 지출액과 비중

지출항목 구분		비중	해당 내역
현금 지출 (錢秩 用下) (①+②+③+④)	인건비	35.9%	書寫手, 刻手, 木手 등의 인건비
	간행자재비	11.9%	冊板木, 白紙, 刊筆, 鐵釘 등의 구입비
	식재료비	12.6%	肉類, 魚類, 海藻類, 醬類 등의 식재료비
	술·담배값	7.9%	술값과 담배값
	기타 잡비	9.0%	差使路資, 鞋價·餅價·饌價의 선물값 등
쌀 지출 (糧米秩 用下)	쌀값	22.7%	날짜별 소비된 쌀
총 액		100%	

지출내역을 <표 8>과 같이 6개 항목으로 구분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각수, 목수, 서사수, 야장, 책장 등의 인건비로 지출액의 36% 정도를 차지하였다. 간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중간본 간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전체의 1/3을 넘는 금액이 전문인력 인건비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 다음은 간역소에서 매일매일 양식으로 소비되었던 쌀값이 전체의 23% 정도를 차지하였다. 많은 인력이 간역소에서 작업하고 기거하였으며, 용산서원 제원과 외부 손님들이 끊임없이 오갔기 때문에 식사를 위한 쌀값이 전체의 1/4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쌀값뿐만 아니라 식재료비도 적지 않게 지출되었는데 전체 13% 정도이며, 쌀값과 식재료비를 합치면 전체의 1/3을 넘는 비중이다. 식재료비에는 生雉·黃肉·陳鷄 등의 육류, 靑魚·明太·申三魚 등의 생선류, 海衣·早藿·甘藿 등의 해조류, 燻造·曲子·醬·鹽 등의 장류, 乾柿·飴糖 등의 간식류 등이 구입되었다. 특히 식재료 가운데 두부인 造泡, 미역인 甘藿, 청어 등 구입이 두드러지게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그 다음 많은 비중은 板木, 종이, 붓, 갈대돛자리[芦席], 魚膠, 大少丁, 繭絲 등 간행에 필요한 물품과 자재 구입비이다. 전체의 12% 정도로, 예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그 다음은 술·담배값으로 전체 지출액의 8% 정도에 해당된다. 특히 술은 사람이 찾아오거나 간역소를 떠날 때 반드시 대접했던 것으로 보일 만큼 상당히 자주 소비되었고, 담배는 술에 비해 그렇게 많이 소비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타 잡비 항목에는 각수나 야장을 부르러 갈 때 보낸 差使의 노자비, 인력들이 간역소를 떠날 때 선물로 줬던 미투리, 범승포 등의 선물값, 떡값(餅價), 반찬값(饌價) 등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東湖貸去(5兩)”, “崔木手貸去(1兩)” 등 빌려간 돈까지도 포함하여 기타 잡비 지출액은 전체의 9%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 간역소 작업 인력들과 관련된 항목은 인건비(35.9%), 쌀값(22.7%), 식재료비(12.6%), 술·담배값(7.9%) 등이며, 해당 항목의 합산 금액은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역소가 작업 공간이자 거주 및 식생활 공간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784년 최진립 실기 중간본 간행비로 지출된 270냥 7전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1889~1891년에 간행된 성재집과 비교해보면 <표 9>와 같다.³¹⁾

<표 9> 1784년 최진립 실기와 1889년 허전 문집의 간행규모 비교

	정무공최선생실기 (崔震立의 실기)	성재선생문집 (許傳의 문집)
간행시기	1784년	1889~91년
간행장소	경주 용산서원 (천룡사 서암)	단성 상산김씨 법계정사
간행분량	2책 (117장)	17책 (1,267장)
간행기간	약 3개월 ^{a)}	약 19.5개월 ^{b)}
간행비용	270냥7전 (소 54마리 ^{c)})	7,168냥2전 ^{d)} (소 140.5마리 ^{e)})

a) 1784년 2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약 3개월 소요 (1784년 윤3월 포함)

b) 1889년 11월 17일부터 1891년 5월 30일까지 약 19.5개월 소요 (1890년 윤2월 포함)

c) 『간역소용하기』 지출항목 중 “文貳兩陸貳黃肉半雙價下”, “文肆兩捌貳黃犢價下”의 항목을 통해 소 1마리 가격을 5냥으로 추정하여 계산

d) 전체 지출비 8,613냥 4전 7푼 가운데 장판각 건립비 1,445냥 2전 7푼을 제외한 간행비만 산정

e) 『성재선생문집간소용하기』 지출항목 중 “錢伍拾壹兩半價落成時” 항목을 통해 소 1마리 가격을 51냥으로 계산

<표 9>의 『정무공최선생실기』 중간본과 『성재선생문집』의 간행시기는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1784년 최진립 실기 간행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성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연구에서 다루었던 『성재선생문집』 간행규모와 비교해보았다. 이를 통해 18세기와 19세기의 간행을 비교하거나 서원에서의 간행과 문중에서의 간행을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크게 간행분량, 간행기간, 간행비용 측면에서 비교하였는데, 첫 번째인 간행분량을 살펴보면 최진립 실기는 4권2책이며, 간행본 실물 기준으로 1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19세기 후반에 간행된 허전 문집의 분량은 33권17책이고 전체 장수는 간행본 실물 기준으로 1,267장이다. 분량의 측면에서 허전의 문집이 10배 이상 많은 양을 수록하였다.

두 번째로 간행기간을 살펴보면 허전의 문집은 1889년 11월 중순부터 1891년 5월 말까지 총 19.5개월이 소요되었고, 최진립의 실기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1784년 2월 초부터 3월과 윤3월을 거쳐 4월 초까지 총 3개월이 소요되었다. 즉 허전 문집의 분량이 10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허전 문집 간행기간이 최진립 실기 간행보다 6배 이상 길게 소요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행비용을 비교해보았다. 최진립 실기의 경우 당시 돈으로 270냥7전이 지출되었는데, 당시 소값으로 환산하면 약 54마리에 해당되는 비용이다. 반면, 허전 문집의 경우에는 장판각 건립비용을 제외하고 당시 돈으로 7,168냥2전이 지출되었다. 이를 용하기에 표기된 당시 소값으로 환산해보면 약 140.5마리에 해당된다. 이를 소값으로 비교해보면 허전 문집 간행비가 약 2.6배 더 소요되었다.

31) <표 9>의 『성재선생문집』 간행규모는 손계영(2015) 연구 내용을 토대로 간행시기, 장소, 기간, 분량, 비용 등을 작성한 것임

10배 이상의 분량과 6배 이상의 간행기간과 비교하자면 간행비의 차이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해석하자면 19세기보다 18세기 간행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였고, 18세기에 목판본 간행을 시도하는 것이 19세기보다 더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4.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목판본 간행의 실제 과정을 알 수 있는 간역소 용하기 자료를 통해 18세기 서원에서 의 서책 간행과정과 간행비용을 분석하였다. 1784년 경주 용산서원에서 간행된 최진립 실기 중간본을 사례로, 당시 작성되었던 지출장부 『간역소용하기』를 주요 분석 대상자료로 삼았다.

우선 『간역소용하기』 분석에 앞서 최진립 실기의 이본과 실기 간행 관련 고문서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진립 실기의 이본은 1739년 明川府에서 간행된 초간본과 1751년에 간행된 첨입보각본, 1784년 새로 판각된 중간본, 이후 첨입보각된 1800년 직후본, 1875년본, 1904년본 등에 대해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용산서원과 문중에 가전되었던 최진립 실기 간행 관련 고문서 자료 6건을 소개하였다. 중간본 간행장소인 천룡사 서암에 대한 중요사항을 담은 1737년 완문, 중간본 간행과정을 볼 수 있는 1784년 간역소 용하기, 중간본 간행비 마련을 위해 토지를 상환하였던 정황이 기록된 1784년 토지매매명문, 최진립 호와 조정에서 내려준 사제문을 수록하여 실기를 재간행하자는 지역사회 공론을 담은 1824년 통문과 답통, 1875년 실기 간행업무의 조직과 담당자를 알 수 있는 1874년 간역집사기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는 1784년 『간역소용하기』를 통해 실제 간행장소, 간행과정, 간행비용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행장소는 용산서원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천룡사 서암에서 간행이 진행되었다. 천룡사는 조선시대 목판본 불서 간행이 이루어진 곳이기에 간행 기술과 인력이 있었고, 서암은 용산서원 소속 암자로 서원에 필요한 종이를 공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책 간행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기술 등을 갖추고 용산서원과의 소통이 가능한 위치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간행과정으로는 원고의 필사와 수정을 진행하였던 서사 단계, 판각준비부터 실제 판각작업, 장두목 부착, 판교정 작업 등이 이루어진 판각 단계, 판각한 책판의 인출과 장책 작업이 진행되었던 인출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간행비용에 대해서는 간행을 위해 마련한 간행비가 대부분 문중계와 용산서원 소유의 토지를 방매하여 마련한 것임을 밝혔고, 간행비 지출의 약 80%가 간역 작업에 참여한 인력들의 인건비, 쌀값, 식재료비, 술·담배값 등 간역소 인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19세기 후반에 간행된 허전 문집 사례와 비교하여 18세기의 간행이 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18세기의 목판본 간행 시도가 보다 어려웠음을 언급하였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 간역소에서 작성한 지출장부에 주목하여 간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장부 자료는

일기와는 달리 상세한 내용이 없이 지출금액과 항목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어 연구자료로서의 한계가 분명 있다. 하지만 작성자의 주관에 따라 기록되는 일기 자료와는 달리 시시콜콜한 지출사항까지 객관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실제 간역소의 모습과 간행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만, 현재 간역소에서 작성하였던 용하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조선시대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관련 자료의 지속적인 발굴과 공개, 연구자들의 관심을 통해 조선시대 목판본 간행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737년 完議；1784년 刊役所用下記；1784년 土地賣買明文；1824년 通文；1824년 答通；1874년 刊役執事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慶州都會(左通地圖)(古4709-26)；輿地圖(古4709-6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손숙경. 『경주 잠와 최진립 중가』. 서울: 예문서원, 2013.

정순우 외. 『용산서원』. 파주: 집문당, 200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고문서집성 50-51 (경주 이조 경주최씨, 용산서원 편 1-2)』.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강석근. “崔震立의 생애.” 『경주문화』 12(2006). 22-34.

박장승. “경주 소재 書院·祠에서 간행한 典籍考.” 『신라문화』 19(2001). 227-268.

박장승. “貞武公崔先生實紀 刊行에 대하여.” 『경주문화』 11(2005). 204-224.

손계영. “조선후기 영남 문집 목판본 간행의 확산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3호(2013). 447-470.

손계영. “조선후기 책판의 간행공간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9(2011). 359-388.

손계영. “『惺齋先生文集刊所用下記』를 통해 본 19세기 후반 문집 간행과정과 간행비용 분석.” 『고문서연구』 46(2015). 177-204.

손숙경. “조선후기 경주 용산서원의 경제기반과 지역민 지배.” 『고문서연구』 5(1994). 61-96.

손숙경. “조선후기 경주의 伊助 崔氏 가문과 용산서원의 고문서.” 『고문서집성 51』.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3-15.

안승준. “경주 이조의 경주최씨가·용산서원 소장 고문서의 내용과 성격.” 『고문서집성 50』.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5-57.

안승준. “경주최씨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용산서원의 운영.” 『용산서원』. 파주: 집문당, 2005. 57-90.

- 이수환. “경주 용산서원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용산서원』. 파주: 집문당, 2005. 13-56.
정만조. “조선후기 서원의 재정운영 문제에 관한 일시론.” 『용산서원』. 파주: 집문당, 2005. 121-170.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문서자료관 <<http://archive.aks.ac.kr/>>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 Seung-Jun. 2000. “The Contents and Character of Historical Manuscripts of Yongsan Seowon and Choi of Ijo family in Gyeongju.” *Gomunseo-jibseong* 50 (pp. 5-57).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An, Seung-Jun. 2005. “The Social and Economic Foundation of Choi of Gyeongju Family and the Operation of Yongsan seowon.” *Yongsan seowon* (pp. 57-90). Paju: Jibmundang.
- Chung, Man-Jo. 2005. “A Preliminary Study on Financial System of Seowon in the Last Choson Dynasty.” *Yongsan seowon* (pp. 121-170). Paju: Jibmundang.
- Chung, Soon-Woo, et al. 2005. *Yongsan seowon*. Paju: Jibmundang.
- Kang, Seog-Keun. 2006. “The life of Choi jin-lib.” *Gyeongju-moonhwa*, 12: 22-34.
- Lee, Soo-Hwan. 2005. “Local Ruling of the Yongsan seowon Region’s Gentry in Gyeongju.” *Yongsan seowon* (pp. 13-56). Paju: Jibmundang.
- Park, Jang-Seung. 2001. “A Study of the Books published in the academy(書院) of KyungJoo (慶州).” *The Journal of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19: 227-268.
- Park, Jang-Seung. 2005. “On the publishing jeong·mu·gong·choi·seon·saeng·sil·gi.” *Gyeongju-moonhwa*, 11: 204-224.
- Son, Ke-Young. 2011. “A Study on the Publishers and Publishing Places of Wooden Printing Blocks in the Late Joseon.”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49: 359-388.
- Son, Ke-Young. 2013. “Spread of Publication of the Literary Collection by Wood-block printing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447-470.

- Son, Ke-Young. 2015. "A Study on the Process and Expenditure of Anthology Publishing in the 19th Century Based on Gan·so·yong·ha·gi for Seongjae's Anthology (性齋先生文集刊所用下記)."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46: 177-204.
- Son, Suk-Kyung. 1994. "The Economic Foundation of Yongsan Seowon(龍山書院) in the Later Choson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5: 61-96.
- Son, Suk-Kyung. 2000. "Historical Manuscripts of Yongsan Seowon and Choi of Ijo family in Gyeongju in the Later Choson Dynasty." *Gomunseo-jibseong 51* (pp. 3-15).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Son, Suk-Kyung. 2013. *Jam-wa Choi jinlib's family in Gyeongju*. Seoul: Yemun Seowon.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0. *Gomunseo-jibseong 50 · 51*.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